

# “다낭 하루 32편” 日 대체 동남아 공급과잉 심화

동계스케줄 운항횟수 日 24.3% ↓...베트남은 28.4% ↑

수요 검증 안 된 지역 공급과잉...출혈경쟁 불가피

국내 항공사들이 겨울철 성수기인 동남아 지역으로의 노선 확장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등 인기 지역에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 다낭의 경우 하루 30편이 넘는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일본 노선 등에서 발생한 공급과잉이 동남아 노선으로 전이되는 모양새다. 여기에 인기지역 외 지역은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노선이 급격히 늘어나 출혈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동계스케줄이 시작된 지난 27일 기준 국내의 항공사들이 하루에만 32편의 항공편을 인천, 부산(김해), 대구, 무안 등 한국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지난해 동계스케줄이 시작됐을 때와 비교했을 때 23.1%(6편↑) 증가한 수치다.

인천공항에서는 진에어, 티웨이항공, 베트남 비엠헤항공 등이 하루 3편씩 운항 중이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등이 하루 2편씩 운항하고 있다. 베트남항공과 뎀부항공의 경우 하루 1편씩 운항 중이다.

김해공항 출발의 경우 에어부산과 제주항공이 하루 2편씩, 대한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이 각각 1편씩 운항하고 있다. 대구공항에서는 진에어와 제주항공, 비엠헤항공이 하루 1편씩 운항하고 있으며 무안공항의 경우 제주항공에서 하루 1편 다낭으로 항공기를 띄웠다.

이는 항공사들의 일본 불매 운동 여파로 겨울철에도 수요가 높았던 일본 노선을 정리하고 동남아 노선 확대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지난 25일 집계한 항공사들의 동계기간 운항 일정에 따르면, 일본 노선 운항은 지난해 동계시즌 대비 24.3%(주 301회) 급감했다. 올해 하계시즌과 대비하면 감소폭이 25.4%(주 1258회→주 939회)로 더욱 커졌다.

반면,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 운항횟수는 늘었다. 특히 베트남은 전년 동기 대비 28.4%(주 126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도 전년 대비 23.2%(주 66회)의 증가율을 보였다.

다낭의 경우는 겨울철 성수기 탑승률이 90% 이상을 기록하는 등 이미 수요가 어느정도 검증된 지역이다. 이때문에 일본 노선 부진 여파로 인한 항공사들의 수익성 악화

를 회피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공급 확대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다낭 같은 인기지역 외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지역에 공급이 집중돼 항공사들의 출혈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항공사들의 공급과잉은 고스란히 가격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LCC 업체를 중심으로 신규 취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여행지제와 불매운동이 한창인 분위기 속에 지난 7월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베트남 하노이행 비엠헤 체크인 카운터에 여행객이 길게 줄 서 있다.



“좌우로 접고 상하로 접고” 삼성전자 ‘폴더블론’ 첫 2관왕 노린다

지난 9월 사실상 세계 최초의 ‘접는 스마트폰’을 출시해 기술 우위를 뽐냈던 삼성전자가 위아래로 접는 새로운 형태의 ‘갤럭시 폴드’를 공개했다. 세로로 접는 기존 갤럭시 폴드에 이어 가로로 접는 새로운 폼팩터까지 선보이며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의 주도권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로 풀려난다.

삼성전자는 2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개발자콘퍼런스2019’(SDC2019)에서 가로를 축으로 위아래로 접는 ‘클램셸’(clamshell) 타입의 갤럭시 폴드를 공개했다. ‘조개처럼 접는 방식’이다.

기조연설에 나선 정혜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프레임워크개발 그룹 상무는 “갤럭시 폴드는 시작에 불과하다. 새 폼팩터는 더 컴팩트하다”며 제품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날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스마트폰의 사양과 출시일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른 내년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공개될 것이 유력하다고 예상한다.

이유는 위아래로 접는 갤럭시 폴드를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준비·개발해온 만큼 제품을 출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기존에 없던 ‘접는 폰’이라는 새로운 영역 개척에 나선 삼성전자는 지난해까지 상하식 접이와 좌우식 접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함께 개발하면서 막판까지 어떤 형태의 ‘갤럭시 폴드’를 출시할지 치열한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최종 선택한 것이 좌우접이식 ‘갤럭시 폴드’다.

반으로 접는 만큼 휴대성은 향상된다. 업계는 상하접이식 스마트폰을 접으면 세로 길이가 약 6~7cm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현재 프리미엄 스마트폰 세로 길이의 절반 수준이다.

삼성전자가 상하접이식 갤럭시 폴드를 출시하면 좌우·상하접이식 폴더블 스마트폰을 모두 출시한 세계 최초 업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 브레이크 없는 저출산...8월 출생·혼인 또 역대최소기록

통계청 8월 인구동향...출생아 수 2만4408명, 혼인 1만8340건



올해 8월 출생아 수와 혼인건수가 동월 기준 역대 최소 기록을 또 다시 갈아치웠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19년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4408명으로 전년 동월(2만7381명) 대비 2973명(10.9%)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8월 기준으로 최소치다.

저출산이 심화하면서 출생아 수는 45개월째 감소 중이다. 동월 기준 최소 기록은 41개월째 계속되

고 있다. 올해 1~8월까지 출생아 수도 20만8195명에 그쳤다.

8월 기준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6명으로 이 역시 동월 기준 가장 낮았다. 8월 조출생률이 6명 아래로 떨어진 건 올해가 처음이다.

출생아 수와 함께 혼인 건수도 감소 중이다.

올해 8월 혼인 건수는 1만8340건으로 전년 동월(1만9345건) 대비 1005건(5.2%) 줄었다. 혼인 건수도 동월 기준 가장 적었으며 인

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도 4.2건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이혼 건수는 9059건으로 지난해 8월보다 234건(2.5%) 줄었다.

올해 8월 사망자 수는 2만3677명으로 전년 동월(2만3937명) 대비 260명(1.1%) 줄었다. 지난해 폭염으로 사망자가 늘어난 기저효과가 반영됐지만 8월 기준 규모로는 역대 2번째로 많았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도 감소하고 있다.

올해 8월 인구 자연증가는 730명에 그치며 동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 1000명당 자연증가율 또한 0.2명으로 가장 낮았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 과장은 “우리나라 인구 규모를 결정짓는 출생·사망·혼인 중에서 출생아 수가 45개월 연속 감소 추세”라며 “혼인도 여전히 감소하고 있어서 출생에는 긍정적이지 않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당분간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10년간 월임금 상승

금융·보험 148만원 vs 숙박·음식 38만원

지난 10년간 월임금총액이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금융·보험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숙박·음식 업종은 가장 적게 올라 금융·보험과의 상승폭 차이가 110만원에 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개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보험 업종은 148만원 상승하는 동안 숙박·음식 업종은 38만원 상승했다며 30일 이같이 밝혔다.

월임금총액은 정액급여와 초과급여에 전년도 특별급여액을 12로 나눈 것의 합으로 월임금총액의 12개월분이 연봉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같은 기간 월임금총액은 평균 75만원 올랐으며,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금융·보험(148만원), 광업(123.2만원), 전기·가스업(123.1만원) 순이었다. 가장 적게 증가한 업종은 숙박·음식

(38만원), 협회·수리·개인(39만원), 보건·사회복지(48만원)로 나타났다. 동기간 증가율은 평균 33.0%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임금근로자 월임금총액은 평균 303만원으로 지난해 2009년(228만원) 대비 33.0%(연평균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연평균 1.9%)보다는 높고 최저임금상승률(연평균 7.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업종별 월임금총액을 살펴보면 전기·가스업이 577만원으로 가장 많고, 금융·보험 540만원, 전문·과학·기술 427만원 순이다. 월임금총액이 가장 적은 업종은 숙박·음식 147만원, 예술·스포츠·여가 203만원, 협회·수리·개인 212만원 순이다. 월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업종과 적은 업종 간 차이는 430만원으로 2009년(345만원)보다 85만원 증가했다.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